

농촌지도의 두 가지 관점의 비교

-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의 비교 -

임형백 · 윤준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공주대학교*

A Comparison between Two Viewpoints of Agricultural Extension

- A comparison between econometric and non-econometric method -

Hyung Baek Lim · Jun Sang Yoon*

College of Agri.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re are two viewpoints in agricultural extension. One is economics(econometrics) the others is non-econometric social sciences. In Korea economics means mainstream economics. Most mainstream economists have tried to solve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Korea using their basic principles and econometrics. This mainstream economics have been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y people due to its convenience, effectiveness, and clearness. Howeve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should be studied through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fter considering their specific social structures. Especially, Kore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have many aspects that can not be easily explained by main stream economic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will; 1)identify the origin, growth, and limitation of mainstream economics, i.e. econometrics 2)identify the paradigm and the view of social sciences and out-of-mainstream economics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main stream economics in explain the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in Korea, and 3)suggest to us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solve the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in Korea.

I. 서 론

한국에서 농업·농촌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농촌은 점차 밀려나고 있으며, 급격한 시장개방 속에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농정이 실시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 임기응변식의 농정의 수립과 잦은 변경으로 농업·농촌을 사수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성공적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은 지역과 경영주체에 따른 차이가 크고 정보의 공개와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부문산업으로 인식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더욱이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도입된 계량경제학(주류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현실 설명보다는 계량적 모형의 수학적 검증에 집착하면서 현실과 괴리되었다.

미국은 초기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빼앗은 땅에 도시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자연착취식의 농업을 전개하여 이는 한국의 농업형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미군정 이후 미국에서 도입된 주류경제학(mainstream economics)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는 바람에 한국의 농업·농촌연구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한국농업이 처한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면도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도입된 주류경제학(계량경제학)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농업·농촌지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괴리된 채 계량적 모형의 검증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류경제학 이외의 다양한 비주류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시각을 포용하여 총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II. 주류 경제학 비판

1. 주류 경제학의 전개

주류경제학(근대경제학)은 A. Smith를 시조로, D. Ricardo, T.R. Malthus, J.S. Mill), J.M. Keynes를 거쳐 P.A. Samuelson에 이르는 신고전파종합¹⁾(neo-classical synthesis)과 M. Friedmann에 이르는 통화주의(monetarism)의 흐름을 말한다. 이들은 영·미에서 발달하여 현재 영국, 미국, 북유럽 諸國과 네델란드,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유럽대륙의 경제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170년 전 Oxford 대학에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강좌를 개설을 논의하자 많은 사람이 반대하였다. Oriol College의 Edward Copleston 학장도, 대학의 교과 속에 “다른 교과를 침식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학문을 추가하기를 싫어하였고, 1825년에 강좌를 마련해 준 Henry Drummond 조차도, Oxford 대학이 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한도를 지킬” 것을 다짐해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하여, ‘낮은’ 지위에 만족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던 초대 교수인 Nassau Senior는 취임 강의를 경제학의 장래를 예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부터 윤리학 중 가장 매력적이고 효용이 크며 훌륭한 학과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는 또 “부의 추구는 인류의 도덕적 향상의 위대한 원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모두 이처럼 거창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J.S. Mill은 경제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경제학은 「하나만으로 유리된 것(학문)이 아니며, 보다 큰 전체의 일환이고, 그 밖의 모든 부분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철학의 한 부문이다. 따라서 그 고유 영역 내에서의 결론도 일정한 조건이 수반될 때만 정당하다. 그것은 경제학 자체의 범위 내에는 없는 여러 원인으로부터의 간섭(interference)이나 제약(counteraction)을 받는다.」(Schumacher, 1995:41)고 규정하였다. 최초

1) Samuelson이 그의 저서 경제학(제3판, 1955)에서 확립한 이론을 말한다.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Keynes의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의해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Micro 가격이론에 따라 경제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 경제적 복지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하며, J.F. Kennedy, L.B. Johnson의 신경제학과(New Economics) 정책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유효한 처방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남북문제나 국제통화위기에 도 무력하다는 점에서 통화주의자(monetarist), 사회경제학자 등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정부가 Keynes의 개입정책을 중지하고 물가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화폐수량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의 운용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화주의(monetarism)이다.

의 계량경제학자로 불리는 H.L. Moore가 『Economic Cycles: Their Laws and Cause, 1914』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통계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동태적” 수요함수를 측정하였다. Moore는 이후 3권의 저서에서 여러 형태의 수요함수를 측정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시도는 일부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로부터 냉담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국 농업경제국²⁾(the 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 BAE)의 연구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Moore에 의해 시작된 수요함수의 측정을 공급함수, 비용함수, 생산함수의 측정에까지 이용하였다. 1932년에 한 사업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코울스 위원회³⁾(Cowles Commissions)가 설립되면서 수학과 통계학의 지식을 갖춘 유럽의 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경기변동의 설명과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계량모형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Tinbergen(1939)은 여러 가지 경기변동이론을 통계적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모형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방법론에서 1976년에 개발된 Data Resources Inc.의 모형은 700여 개의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된다(홍기현·김진방, 1998). 방정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연 이 방정식의 조합이 인간행동의 설명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지는 의문이다.

경제학에서 수학의 비중은 2차세계대전 이후 두드러졌는데(Lovell, 1973:27-35),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이 Marshall Plan을 통하여 유럽의 경제회복을 주도하면서 투입-산출에 따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이전

에 유럽에는 생산성(productivity)이란 개념도 없었지만, Marshall Plan을 통하여 미국식 생산방식을 도입한 과정을 통하여 모든 작업환경의 통제와 측정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단체교섭에 의한 원만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Fordism)가 유럽에서도 주된 생산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류 경제학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었다. 정부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제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학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邊衡尹, 1990:3). 이후 주류경제학은 대학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이론체계를 갖추면서 전수되었고, 그 현실적 타당성을 의심받는 일은 드물게 되었다. 특정한 假說體系가 습득된 지식으로 전파되어 경제학자에게 공통된 이념적 기초를 마련해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형성되었다. 추상적이고 질적 변인의 성격이 강한 사회과학에 수학적 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도 상이한 계량모형이 형성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을 받아들인 미국에서도 신고전주의 학파의 거두인 Samuelson의 경제학(1948)이 출판된 이후 16판까지 개정되면서 戰後 경제학 입문서로 군림하게 되었다. 당시 30세의 MIT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그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Keynes의 이론을 부드러운 문체와 분명한 예, 그리고 알기쉬운 圖表 등을 이용해 비판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성공에 힘입어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전후 확대된 미국의 영향력과 더불어 전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에는 경제학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베이비 붐

2) BAE는 1922년에 농무성 산하의 여러 연구소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농업경제학의 독립적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3) Cowles Commission은 1939년에 Colorad Springs에서 Chicago로 옮겼다가, 1955년에 Yale로 다시 옮기면서 Cowles Foundation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세대인 젊은 경제학자들이 학계를 주도하면서 주류경제학계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경제 문제를 보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더욱 회의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 현재의 경제학은 남북문제 등에 대하여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Post-Samuelson을 지향하는 Mankiw(1998)의 「경제학」도 정부의 개입에 회의적이며 적자재정은 저축을 해쳐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유발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 주류 경제학의 한계

경제학은 「효용(utility)의 可測性,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주체와 완벽한 정보의 공유라는 이상적 가정」아래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입각하여 이론을 구성해 왔다. 사실 지금까지 경제학에는 많은 異論과 異說이 있어왔다. 근대경제이론의 선구자는 수학을 경제학의 영역에 도입한 J.H. Thünen 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주류경제학은 도표와 수학기법의 사용을 통하여 지식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였으며, 과거의 사례의 계량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에 적극개입하면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들은 경제변

수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수학적인 경제이론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 분석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미래연구방법⁴⁾에 있어서 개념의 수량화(quantification of concepts)를 통한 일종의 추세의삼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통계자료)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며, 현대에 이르러 경제학은 수량화 수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학은 Samuelson의 저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 사변적 분석과 학설사적 이론전달이 주류였던 고전경제학적 전통을 버리고 경제학에 수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경제학이 지나치게 수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론이 됐다는 비판을 낳았고, 일반대중에게 경제학은 건조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학문적 발전을 위한 비판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었다.

신케인즈학과(Neo-Keynesian)의 Robinson(1972)은 현대의 새로운 경제문제를 변칙적 현상으로 처리하거나 실증연구의 확충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고 보는 주류경제학의 주장 경제이론의 구조적인 변혁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Sweezy(1972:

4) Ludwig Wittgenstein 이후 서양사상은 영·미와 대륙으로 양분되었다.

사회과학에서 현상연구방법도 (1) 영·미 중심의 자연과학적 모델(natural science model)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연구방법을 찬성하는 즉,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의 전통을 이어 받은 자연과학적 또는 행태주의적 연구방법을 추구하는 흐름, (2) 대륙 중심의 흐름에 반대하는 즉, 문화과학 또는 해석학(hermeneutics)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로 역사주의적 연구방법을 추구하는 흐름의 두 가지가 있다. 초창기에 많은 학자들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연과학적 방법은 인간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1960년대 현상학(phenomenology)의 영향으로 이러한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미래연구방법에는 크게는 (1) 지나간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거 일정기간 나타난 규칙성을 바탕으로 변동 추세를 예측하는 추세의삼법(extrapolation), (2)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설정하고 각각의 전개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나리오법(scenario), (3)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 정도에 따라 예측하는 전문가 합의법(delphi technique)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작게는 여기에 모의실험법(simulation)과 의사결정나무작성법(relevance tree)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6)는 경제이론이 내용면에서의 무가치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분석기법을 정교화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다루고 있는 문제와 분석기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Kristol(1984:281)도 경제학계를 지배하는 「과학주의적인」 모형은 경제현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경제정책을 위한 추론은 점점 더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Drucker(1984: 21)도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학의 위기」는 기본적인 가정, 모형 및 「이론체계」의 실패라고 하였고, Willes(1984:115)는 케인즈학과 모형들의 실패를 단언하고 있다. Bleicher(1993)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자연과학에 의해 성립된 과학적 탐구방법을 그대로 사회현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흐름을 '과학주의'(scientism)라고 비판하고 있고, 미국만의 독자적인 풍토에서 생긴 제도학과도 경제 관계에서 권력(power)의 예를 들어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아시아개발도상국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미국식 「카우보이 자본주의」와 유럽식 「사회적 시장자본주의」의 차이로 인하여, 주류경제학은 비주류경제학과 교류가 단절되어 고립된 채로 수학적 검증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지식인은 경제학을 선호하지도 않았고 정부도 전후복구에 매달려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69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후 노벨 경제학상은 수상자들이 과연 「경제」에 공헌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1998년까지 43명에 이르는 수상자 중 대부분이 주류경제학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인이며, 이들 국적이 아니더라도 영·미의 경제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역대 노벨 경

제학상 수상자와 주류경제학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이 명확히 나타난다.

문제는 노벨 경제학상이 신설된 이래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일본이나 독일, 아시아 諸國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Samuelson, Hayek, Myrdal 등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수상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의 수상자들은 경제 모형과 이의 수학적 검증에 주력하는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에 집중되었으며, 후보 자격도 주류경제학을 강의하는 미국의 일부 명문대학 경제학 교수로 굳어져 있다. 예를 들어 Galbraith는 주류 경제학계에 대해 「권력과 정치의 문제를 빼놓은 쓸모없는 분석틀」이라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여 늘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이 「경제」가 아니라 「경제학-그것도 주류 경제학-」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이란 말은 신고전학과(케임브리지학과)의 A. Marshall의 『경제학 원리, 1890』가 나올 때까지는 정식으로 쓰이지도 않았고, 그 때까지 쓰여졌던 말은 「정치 경제학⁵⁾」이었다(Bell, 1984:69). 경제학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의 로버트 던 교수도 1993년 4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紙에 기고한 글에서 “1백 50년 전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출현한 경제학이 최근 몇 년간 이론을 위한 이론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으며, 늘 그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Mészáros(1971:63)는 ‘경제란 개념은 자본주의적 생산하의 「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주된 방법론 논쟁이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시·공간적으로 팽창하는

5) 시간이 지나면서 Karl Marx(1818-1883)의 영향으로 점차 「마르크스 경제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주류경제학의 상관성

연도	인명(국적)	연도	인명(국적)
1969	Ragnar Frisch(노르웨이) Jan Tinbergen(네델란드)	1984	Richard Stone(영국)
1970	Paul A. Samuelson(미국)	1985	Franco Modigliani(미국)
1971	Simon Kuznets(미국)	1986	James M. Buchanan, Jr(미국)
1972	Kenneth J. Arrow(미국) John R. Hicks(영국)	1987	Robert M. Solow(미국)
1973	Wassily Leontief(미국)	1988	Maurice Allais(프랑스)
1974	Gunnar Myrdal(스웨덴) Friedrich von Hayek(오스트리아)	1989	Trigve Haavelmo(노르웨이)
1975	Leonid V. Kantorovich(소련) Tjalling C. Koopmans(미국)	1990	Harry M. Markowitz(미국) Merton M. Miller(미국) William F. Sharpe(미국)
1976	Milton Friedman(미국)	1991	Ronald H. Coase(미국)
1977	James E. Meade(영국) Bertil Ohlin(스웨덴)	1992	Gary S. Becker(미국)
1978	Herbert A. Siomon(미국)	1993	Robert W. Fogel(미국) Douglass C. North(미국)
1979	Theodore W. Schultz(미국) Arthur Lewis(영국)	1994	John F. Nash(미국) John C. Harsanyi(미국) Reinhard Selten(독일)
1980	Lawrence R. Klein(미국)	1995	Robert E. Lucas(미국)
1981	James Tobin(미국)	1996	James A. Mirrlees(영국) William Vickrey(캐나다)*
1982	George J. Stigler(미국)	1997	Robert Merton(미국) Myron Scholes(미국)
1983	Gerard Debreu(미국)	1998	Amartya Sen(인도)**

* 미국 Colombia 대학교 교수

** 영국 Cambridge 대학교 Trinity College 교수

시기로 인해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 따라서 당시에 주류경제학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정신이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짜로 간주되었다(Singh, 1986:11). 1960년대 후반 이후 정형화된 이론체계에서 예상되지 못했던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났으며(邊衡尹, 1990:3), 오늘날에도 경제학이 현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신고전파종합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여기에서 행위주체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 행위만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따라서 Becker(1957; 1976)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은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능력있는 소수민족이나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주는 시장의 경쟁에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에 의해 도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차별의 비경제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역사적인 요인 때문에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Cain, 1976; Thurow, 1975). 현재의 경제학은 Lakatos의 과학적 연구 계획의 분석틀을 빌어 설명하면,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핵을 바탕으로 적극적 연구지침(positive heuristics)과 소극적 연구지침(negative heuristics)을 구분짓고, 가장 효율적인 연구방법을 택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에 해석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익 집단의 이해 관계에 초연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여 연구하려는 전문가적 보수주의(professional conservatism)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홍기현·김진방, 1998).

이에 대하여 Veblen은 근대 경제학의 추상화 경향에 대하여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신고전학파(neo-classical school), 한계효용학파(school of marginal utility) 등은 심리학적 쾌락주의(psychological hedonism)와 자연법철학에 기초를 둔 것으로 경제의 비현실적 균형상태를 연구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 이재열(1996:8, 323, 341)도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결합한 합리적 선택이론이 조직을 실제로 다루지 않고, 거시적 변화를 개인의 합으로서만 이해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연역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고, 미국경제학회⁶⁾의 회장이었던 Boulding(1966:12)조차도 경제학의 불완전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주효했는지, 90년대 이후 수상자들의 면모가 조금은 다양해지고 있다. 1991년 수상자인 Coase는 주류경제학계에는 속하지만 법경제학자였고 경제이론에서 수학적 검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1993년 수상자인 Fogel과 North는 주류경제학에서는 조금 벗어난 제도학과(institutional school)였다. 제도학과는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려면 제도와 조직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속하는 Mirrlees와 Vickrey의 이론도 「많은 경제 주체가 주어진 정보에 대해 생각처럼 단순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누진세를 적용하더라도 납세자는 세금을 내기보다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소득을 낮춰 새로운 세율에 맞게 자신의 소득을 조정하며, 농업에서도 특정작물생산량의 공급이 수요를 웃돌아 가격이 하락하면, 다음 해에는 그 작물의 생산을 기피하여야 하지만 일부농민은 오히려 역으로 그 작물생산에 뛰어들다. 경제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수량화가 불가능한 질적 변수(qualitative variables)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인간 행동의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경제이론을 물리학과 같은 틀로 구성하는 주류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미분방정식과 같은 수리적 기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ingh, 1986:133-134;

6) 미국에서 1870년대까지는 고전파적 영향이 가장 컸다. 그 이후 T. Veblen 등으로 대표되는 제도주의자와, J.B. Clark와 I. Fisher 등으로 대표되는 한계주의자가 서로 경쟁하였다. 특히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후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은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1885년에 미국경제학회를 창립하였다(홍기현·김진방, 1998. p. 139).

Hirsch et al., 1987:319). 그러나 John von Neumann은 유명한 수학자이면서도 수학분야의 위대한 업적이 주로 자연과학에 의해 제기된 필요에 의해 발전된 것이며 수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 의해 발전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정교한 분석방법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끈질기게 기계적인 도그마에 빠져들게 된다(Singh, 1986:133-134). 宇澤弘文(1982:74)도 일반균형분석의 수학적 정밀화를 1950년대 미국경제학의 단적인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은 1970년대에 들어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유효한 처방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남북문제가 국제 통화위기에서도 무력함을 드러냈다. 또한 경제학은 수학적 방법을 채택하지만 수학과는 달리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모형에서는 수학적 해답이 도출되더라도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대폭적인 감세와 그에 맞춘 정부 지출의 삭감, 통화 공급의 제어와 공급 측면의 경제학과 통화주의의 결합을 추구한 미국의 Reaganomics를 보자. 당대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완벽한 모형하에서 수학적 해결책을 도출하여 성공을 장담하였지만 8년 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적 가정아래에서 성립한 모형의 현실적용에 실패한 주류경제학의 불완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1998년도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하여도 IMF는 고금리 정책을 주장한 반면 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Sen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Ⅲ. 주류 경제학을 넘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류경제학의 연구방법론의 공통적 특성은 대체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이다. 개개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선호(preference)와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완벽한 정보공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주체로 가정된다. 그러나 인간행위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질적변수를 포함하며 가변성이 존재한다. 행위자 자신도 자신의 선호를 분명히 계산할 수 없고, 선호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경제학은 그 만큼 불완전한 가정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다.

Eichner(1987:235)에 의하면 경제학은 수요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J.V. Robinson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신케인즈학파(Neo-Keynesian) 이론은 정통적 신고전파이론과는 달리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 Hansen(1887-1975)이 영국에서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인 이후 그의 제자인 Samuelson 등이 케인즈 이론을 왜곡시켰다고 미국의 신고전파종합을 비판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추상적인 것을 수식과 도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쉽게(현대에 이르러는 지나치게 수식화되었지만)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경제학의 성공은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경제학은 성공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발전한 하나의 학문일 뿐, 결코 수학과 같이 항상 정답이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농촌지도에 있어서 발전이 단순히 부의 증대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계량화가 가능한 소득만이 척도가 될 수 없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비계량적 방법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계량적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쉽기 때문이다.

Schumacher(1995:43)의 표현대로 '돈의 형태로 충분한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의미가 되며, 경제학의 방법으로부터는 그 의상의 의미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류 경제학은 추상적 모형과 현실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현실에 적합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형식적, 극대화 모형의 원리에

〈표 2〉 경제학의 분류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현상파악의 기본시각에 따라	연구의 영역에 따라
실증경제학 : (positive economics)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경제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관심	실증경제학 : 객관적으로 드러난 인간행위에서 분석을 시작하며,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설명대상의 전체.	미시경제학 :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취급.
규범경제학 : (normative economics) 경제정책이나 행동방향의 결정에 관심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가치판단이 문제의 해결에 개입되므로 하나의 현상처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도출	정치경제학(마르크스 경제학) : 현상형태를 나타나게 하는 구조나 결정인자가 더욱 중요한 관심.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발전·소멸을 가정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부구성과 운동법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거시경제학 : 국민경제전체를 대변하는 여러 변수의 결정원리를 연구. 경제사 : 경제적 사건의 역사적 전개에 초점.

자료: 조영달 편저, 1998, pp. 17-19를 참고하여 작성

경제현실을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지도에 있어서 경제학이 좀 더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류경제학의 실증경제학적 사고를 넘어서 규범경제학과 정치경제학적 방법과 다양한 학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한다. 주류경제학은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있지만 J.S. Mill도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일부 분이며 인접학문의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류경제학(계량경제학) 영역의 이해와 보완을 위하여 경제학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구성론적 미래관⁷⁾이 사회과학의 목표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Reynolds(1988:8)의 주장처럼 과학적 지식은 근본적으로 서술(description)과 설명(explanation)을 하기 위한 체계(system)일뿐 모든 것이 과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경제학은 설명과

서술보다는 예측(description)을 추구하는 학문이므로 다른 사회과학과는 학문의 방법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류경제학은 자신들의 방법론만을 고집하면서 폐쇄적인 공간안에서 마치 인간의 행위 중 경제적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Granovetter(1985:490-491)는 이에 대하여 인간의 행위는 모두 사회구조 안에 배태(embeddedness)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화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근대경제학적 가정의 비현실성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Myrdal(1971)도 신고전학파의 균형이론가로서 출발했던 자신이 어떻게 하여 제도적 접근을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되었는가를 밝히면서, 경제학은 경제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편집병적(paranoid)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경제학 각 분과

7)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미래관을 말하며, 「결정론적 미래관」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간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인접과학과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학 위주의 사고방식속에서 사회과학자의 역할에 대하여 Robni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방임주의의 경제학자들은 각 개인에 의한 사익의 추구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무시하려 했다. 현재의 反抗세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技術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재주장하는 일이다. 사회과학자의 임무는 이 일이 얼마나 절실하며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Robnison, 1971:124).

사실 19세기의 H. Spencer와 20세기의 G.H. Mead를 예외로 한다면 '경제와 사회'라는 주제를 지나친 사회학자는 거의 없었고, 경제학을 결정론적 형식과학이 아닌 경험에 기초한 현실과학으로 파악한다면, 경제학은 특수 사회과학으로 인식할 수 있고(Kutsch & Wiswede, 1986:3-13), 사회학자인 Weber도 경제학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지난 200년간 경제사상의 역사의 상당부분은 비경제적인 내용이였다. 또 Boulding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몇몇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있어서 쌍방의 교환개념-Adam Smith 이래 경제학을 지배하였던 개념-은 경제생활의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논하고 있다(Smelser, 1976:4-27). 주류경제학 이전에는 경제학과 사회학은 분류된 학문이 아니었고, 지금에

서도 주류경제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비주류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 분과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에 이르러 방법론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계량적 방법을 추구하는 경제학과 그렇지 않은 사회과학의 차이는 <표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에서 보았듯이 현실에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경제학이 현실적으로 정책에 더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1930년대에는 아직 과학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반면(Swaney & Premus, 1987:60), 2차세계대전(1939-1945) 이후 경제학은 수학적 분석기법과 정부의 역할증대로 인하여 고속성장했으며, 이것이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불연속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의 사회·역사적 특수성과 Marshall Plan을 통한 전후 유럽의 복구라는 특수한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Luhmann(1984:308-327)과 이남복(1996:90)은 사회연구에 있어 경제만을 분리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행동이론적 경제학자와 후기 Marshall파의 경제학자는 고등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case study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Earl, 1987:113), 시요자와 요시노리(1999)는 인간능력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며, 개별요소의 정적인 분석보다 전체 시스템의 장기변동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도 Coleman⁸⁾을 중심으로 합리

8) 미국의 사회학계는 크게 둘로 양분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지식층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됨으로써, 시카고 학파의 경험적이고 토착적인 "미국 사회학"을 대신할 보다 이론적인 사회학이 동부의 하버드와 콜럼비아에서 성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 하버드와 콜럼비아의 사회학자들(Parson의 기능주의 사회학)은 시카고 학파의 실용주의적 사회학이 비이론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카고 학파의 잡지인 「미국 사회학회지(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에 맞서 1936년 「미국 사회학 연구(American Sociological Review)」를 창간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하버드 사회학과는 Talcott Parsons(1902-1979)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그의 제자 Robert K. Merton(1910-)과 Barber가 콜럼비아의 이론적 전통을 세웠으며, J.S. Coleman은 Merton의 제자이다. 한편 시카고의 Herbert Blumer(1900-)가 1937년 만들어낸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은 서구의 사회학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전적인 "미국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Parsons에게 도전한 유일한 미국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표 3〉 계량적 경제학과 비계량적 사회과학의 비교

구 분	경 제 학	사 회 과 학
철학적 견지	행태주의자(behaviorist) 물질주의자	해석적(이해)interpretive(verstehen) 이상주의자
정책적 견지	규범적(normative) 해결-지향적(solution-oriented)	가치 중립적(value neutral) 문제-정의적(problem-defining)
목적	예측(prediction)	가치 묘사(value description) 설명
가정	많은 추상적 가정	최소의 가정
분과 및 학제간의 교류	활발하지 못함	활발함
다양성	일면적 해석 (one way of approaching problem)	다면적 해석 (multi way of approaching problem)
방법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양적·수학적	다양한 방법론 양적·질적
변인	적은 변인	많은 변인
시장(market)에 대한 시각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다	기업과 은행에 의하여 쉽게 조작될 수 있다
행위자	합리적인 존재	복잡한 존재
주요분석단위	개인	사람들(collectivities)
경제행위	사회구조(사회적 영향력)와 무관	사회적 관계에 묻혀 있다(embedded)
분석방법	이상적 상황을 가정한 모델의 분석	경험적 자료의 분석
형태	unrealistic but clean models	verstehen(이해)-oriented dirty hands

자료: Hirsch et al., 1987, pp. 317-336을 참고로 하여 재작성

적 선택이론이 자리를 잡았다. Hirsch et al.(1987)는 문화적, 역사적 변화와 다양한 정당성 요구를 회피하는 효율성 위주의 경제학적 방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무비판적인 경제학의 수용은 경험세계로부터 유리시키고 시각을 편협하게 만들어 사회적 삶의 풍요함과 다양함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경험세계 및 사회적 삶의 풍요함과 다양성이야말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사회학의 강점이라고 주장한다. Wallerstein et al.(1996:121-123)도 사회과학의 재구조화는, 과거 학습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을

감안함으로써 그리고 진정으로 보다 다원주의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를 건설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IV. 결 론

학문에 있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폭 넓은 시각과 유효성이다. 또 점점 복잡해지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욱 학제적 접근이 요구되며 유일무이한 척도는 있을 수 없다. 학문은 보다 다양한 시각의

로 바라보고 많은 것을 포용하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위대한 건축가가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은 아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새로운 건축양식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이 있는 사람이다. 학문도 전체적인 조화와 협력의 범위 안에서 세분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서는 안된다. 또 더 이상 가시적 공리성과 효율성만을 지식의 척도로 삼아서도 안된다.

한국의 농촌사회는 전통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있고 당연히 한국의 농업과 농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도 미국식의 주류경제학(계량경제학)의 설명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면이 많음에도, 한국은 지나치게 이에 집착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학이 현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Robinson, 1972; Smelser, 1976; Polanyi, 1977; Drucker, 1984; Luhmann, 1984; Granovetter, 1985; Hirsch et al., 1987; Schumacher, 1995; 김선요, 1996 등)은 공리주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들 경제학의 방법론에 주로 집중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나은 답을 얻고 이를 총체적 시각에서 구하려는 시도(Lyotard, 1994), 프랑크푸르트 학파⁹⁾, 제도학과, 사회경제학자¹⁰⁾(socio-economist)의 관점과 방법이 짧은 연구기

간과 적은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배척되어서는 안된다. 또 계량화된 모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론은 어디까지나 모형과 실제세계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많은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주류경제학적 연구성과가 농업 경제학 그 자체와 농업·농촌 중 어느 것에 더 도움이 되었는가? 연역적 추론에 의한 비경험적 방법을 사용한 주류경제학의 모형으로 현실세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여 연구하려는 전문가적 보수주의(professional conservatism)에 빠져들기보다는(홍기현·김진방, 1998),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국의 농업·농촌 지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계량적 방법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의 실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다학문적이고 보다 현실에 접근한 연구가 필요하다.

V. 참고 문헌

1. 공유식 외 3인 편저. 1994.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2. Gregory N. Mankiw. 1998.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9) 오늘날 「비판사회이론」 또는 「비판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독일 Frankfurt 대학 부설기관으로 1924년 개설된 「사회조사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Frankfurt」에 참가한 학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T.W. Adorno(1903-1969), Erich Fromm(1900-1980), Herbert Marcuse(1892-1979), Walter Benjamin(1892-1940), L. Löwenthal, F. Pollock, F. Neumann 등이 이에 속하며,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제4세대의 학자群으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이 학파의 인물로는 Jürgen Habermas(1929-), Claus Offe(1940-), Alfred Schmidt(1931-), Albrecht Wellmer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유럽의 대학이 신학을 위주로 하여 신학의 하위학문으로서 신학을 뒷받침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타학파가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Frankfurt 대학은 사회학과와 철학파가 중심이 되어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이들의 전통이 학파에 계승되어 이들은 현대 사회를 철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이 취급하는 갖가지 문화 영역의 상호 관련 속에서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0) 경제학을 중심으로 인류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을 포괄하여 종합사회과학을 지향하는 연구를 말한다.

3. _____ 1999.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4. 김선요. 1996. “한국 농정(農政)의 철학적 분석과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설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3권 제1호, 한국농촌지도학회.
5. 김준영. 1994. “경제학의 사회과학으로서 진화와 과제”.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한울.
6. 나린다르 싱. 1986. 經濟學과 環境危機, 比峰出版社.
7. 류장희. 1987. 경제학의 새조류, 매일경제신문사.
8. 邊衡尹 편. 1990. 反主流的 經濟學, 청람.
9.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한울.
10. 시오자와 요시노리. 1999. 왜 복잡계 경제학인가, 푸른길.
11. A. S. 아이크너 편저. 1987. 왜 경제학은 아직도 과학이 아닌가, 經文社.
12. 오광우. 1998. 계량경제학사, 민음사.
13. 柳東民 편역. 1994.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比峰出版社.
14. 兪仁浩 編譯. 1982. 現代經濟學의 위기, 한길사.
15. 이남복. 1996. 현대경제사회학, 청주대학교 출판부.
16. E. F. Schumacher. 1995.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의 경제학, 범우사.
17. 이영희. 1995.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한울.
18. 이재열. 1996. 경제의 사회학: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이론과 방법, 나남출판.
19. 이재울. 1995. 경제윤리, 민음사.
20. 李知勳. 1993. 社會科學의 메타分析方法論, 충북대학교 출판부.
21. 임매뉴얼 윌러스틴 et al. 1996. 사회과학의 개방: 사회과학 재구조화에 관한 퀴벤키안 위원회 보고서, 당대.
22. 張峻昊·李南馥 編譯. 1987. 經濟社會學, 나남.
23.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1994. 지식인의 종언, 문예출판사.
24. 정현식 외 2인. 1997.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5. J. B. 버날. 1984. 사회과학의 역사: 사회경제사의 흐름과 사회과학의 성격, 한울.
26. J. K. 갈브레이드. 1992. 불확실성의 시대, 기린원.
27. 조영달 편저. 1998. 경제학과 경제사상, 드림북스.
28. Charles Wolf. Jr.. 1991. 市場과 政府: 不完全한 選擇代案, 敎文社.
29. 칼 폴라니. 1991.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민음사.
30. Paul Davidson Reynolds. 1988. 理論構成의 入門, 壽文社.
31. 홍기현·김진방. 1998. “미국 주류 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방법론적 평가”. 미국학연구소. 미국사회의 지적흐름, 서울대학교출판부.
32. Becker, Gary. 1976. The Economics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3. Boulding, K. E. 1966. “The Economics of Knowledge and the Knowledge of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L VI, May 1966, No.2.
34. Cain, G. G. 1976, “The Challenge of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4).
35.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36.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

- 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7. Hage, Jerald. 1972. Techniques and Problems of Theory Construction in Sociology,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38. Hirsch, Paul, Stuart Michaels & Ray Friedman. 1987. "Dirty hands" versus "clean models": Is sociology in danger of being seduced by economics?. Theory and Society 16: 317-336.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9. Jens Beckert. 1996. "What is sociological about economic sociology? : Uncertainty and the embeddedness of economic action", Theory and Society 25: 803-840.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40. Mankiw, G. N. 1992. Macroeconomics, New York: Worth Publishers.
 41. _____ 1998.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The Dryden Press.
 42. _____ 1998.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New York: The Dryden Press.
 43. Mészáros, István. 1971. The Necessity of Social Control, London: Merlin Press. p. 63.
 44. Robinson, Joan Violet. 1971. Freedom and Necessity, London: Allen & Unwin. p. 124.
 45. _____ 1972.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46. Samuelson, Paul A. 1947.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47. _____ 1947. Economics. Cambridge, Mass.: McGraw-Hill.
 48. Samuelson, Paul A. & William D. Nordhaus. 1998.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49. Schumacher, E. F. 1973. 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London: Blond & Briggs.
 50. Swedberg, Richard(ed.). 1993. Explorations in Economic Soci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51. Sweezy, Paul M. 1972. Modern Capitalism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52. Thurow, L. C. 1975. Generating Inequality: Mechanisms of Distribution in the U.S. Economy, NY: Basic Books.